



건축은 한 명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 협동작업의 연속이며,
지금 잘해야 10년 뒤 후배 건축가들에게 물려줄 토양이 될 것입니다.

유타건축사사무소는 초기에는 공공프로젝트 리모델링 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후 전주주택, 흥덕근린생활시설, 크리스탈카운티 c.c 클럽하우스, 서울시립대학교 미디어관, 가평 삼회리 연작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서울시립대학교 교문, 양평 단독주택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특하게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은 따로 가지려고 하지 않지만, 주어진 각기 다른 조건 내에서 최대한 슬직하고 명쾌하게 공간을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구법을 드러내며 대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의 실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디자인은 바로 우리 주변, 우리 동네에 존재하는 지극히 평범한 건물이며, 각각의 프로젝트에 작은 실험들을 적용하고 현실에서 구축해보며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된 생각 없이 최적의 해답을 얻고, 향후 다양한 매체와의 보완과 함께 실질적 동네건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TTA(유타), ZWCAD(지더블유캐드)의 도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유타건축사사무소의 ZWCAD 도입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건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 탑재 및 빠른 속도감 등 작업하기 편한 장점은 직원들의 만족감을 매우 높였으며, 성능대비 기존 캐드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은 회사 차원에서 비용절감 효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캐드 못지않은 좋은 기능, 성능을 갖춘 ZWCAD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영구버전이라서 절감한 예산으로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다른 소프트웨어 구입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효과를 보았습니다.